

제 12강 다중의 세 측면과 형성

◆1교시: 다중의 세 측면과 존재론적 방법론

▲도입: 다중

우리가 7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제국이라는 책하고, 다중이라는 속편하고를 연결 짓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거 같습니다. 제국이라는 용어가 알려진 만큼 다중이라는 용어도 따라서 알려지게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다중이 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소개되고 사람들이 의문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중이라는 범주 그 자체가 제국에 비해서는 - 제국이라고 하는게 어떤 현실성, Actuality의 범주라면 다중이라고 하는 건 꼭 Virtuality라고 하긴 힘들어도 virtual한 것의 장에서부터 actual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지배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파악하기가 제국보다는 당연히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게다가 제국 속에서는 다중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주제로서 취급되기 보다는, 제국의 기능을, 제국의 매커니즘을 설명해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랄까요. 어떤 부차적인 지위를 갖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 개념 그 자체 해명에는 제국이라는 책이 깊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것을 Multitude 라고 하는 속편에 보류를 해둔 그런 상태라고 보면, 왜 제국보다는 다중이라는 개념이 덜 소비되고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운지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중의 세 측면 - alternative, counter-, constitution

제목에 지금 대안이라는 말은 alternative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1항이라고 부르죠. 역전(2항)이라고 하는 것subversion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逆) 개념으로서 영어에서는 counter를 의식하고 쓰는 말입니다. 대항이라고 보통 우리가 새겨왔었는데 이번에 다중을 번역하면서 counter 개념을 이중화시켜야겠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counter-가 대항개념도 있고 역개념도 들어있지만 역이라고 쓸 때하고 대항이라고 쓸 때하고는 카운터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제국과 다중에서 counter다음에 하이픈을 친 경우하고 안친 경우가 있어요. counter 다음에 subversion 등등 해가지고 다른 걸 붙인다. 하이픈이 없을 때에는 대항개념으로 쓰고 하이픈을 쓸 때에는 역개념으로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대항 개념은 맞서는 것과 맞서는 자와, 맞서지는 것과 맞서는 것 사이에 일정한 동일성(同一性)이 존재할 때, 이 두 개가 대칭적이고 동일적일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거울 이미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뒤집지만 그 뒤집은 것이 같은 것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대항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유사한 걸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건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두 개의 대칭성과 동일성을 전제할 때는 대항이라고 번역하는게 나올 거 같고, 그 다음에 역(逆)이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개의 비대칭성을 전제할 때. 그래서 그 실천의 결과가 동일적인 걸로 나타나지 않고 차이의 생산으로 나타날 때. 그 때에는 역이라고 부르는게 낫겠다... 그래서 이번 다중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 용어상의 해설을 붙이고, 이 역제국,

counter-Empire할 때, (이 Empire는 대문자 쓴 엠파이어) 역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구분을 일단 두면서요.

그 다음에 구성이라고 하는건 constitution (3항)인데... 지금 이 책에 일부 서론, 서론의 3장에서는 제국 속의 대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목차를 잠깐 보면은, 3장에 Alternatives within Empi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국 안에서의 대안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왜 1장과 그 다음에 세 번째, 2부의 맨 마지막 그 간주곡에서는 하이픈을 친 counter-Empir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때 우리는 역제국이라고 표현하는게 낫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부의 3장에서는 제국의 대항하는 다중이라고 해서, 다중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요 세 번의 차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을 다루는 이 세 번에 걸친 변주에서... 여기(alternative)에서는 within Empire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우리가 주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영어본에서는 The Multitude against Empire라고 되어있습니다. within Empire와 against Empire... 그니까 제국 내부에 있는 다중을 파악하는 용어는 alternative라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대안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 Multitude against Empire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구성적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항(counter-)이 뭐냐 하는 건데요. 2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3항에 against라는 말을 썼지만 2항에서 엠파이어와 멀티튜드의 질적 차이, 이거를 좀 서술해 주거든요. 엠파이어라고 하는 것하고 멀티튜드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냐, 동질적이지 않고 어떻게 다른가를 서술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본다면 일단 1항에서는 제국 내부에 있는 다중의 무엇을 다루되 그 내부성이라고 하는게 감금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다는 그 속에서의 alter 변화, 변경시키는 노마드라는 개념의 본래적인 의미가 이 alter에 있습니다. 어떤 특질을 바꿔나가는 것,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 기존의 것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 이걸로 설정이 되는 거죠. within하지만 대안으로서 within하는 것이지, 그냥 감금되어있는 순전한 포로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감금되어 있으나 대안적 방식으로 감금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The Multitude against Empire에서는... 엠파이어에 대항해서 다중이 뭘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 때 드러나는게 바로 constitution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구성해내는 작업을 한다, 새로운 것을 함으로써의 다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항에서 다루는 다중이 1항에서 다루는 다중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2항은 왜 필요하냐면 alternative와 constitution을 매개해주는 것으로서 바로 3항에서 적극적인 구성행위가 단순한 동일성으로 나아가지 않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의 구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다중의 내적인 특질, 이것을 서술해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엠파이어에 대한 역엠파이어(counter-Empire)로서의 성격을 다중이 갖고 있음을 분명히 부각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질적 차이의 장면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목에서 말한 대안과 역전, 구성이라고 하는 세 개념이 이 책에서는 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세 부분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중의 세 측면과 존재론적 방법론 (사전 인식)

지금 이 강의안도 어찌보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갔는데요, 우선 방금 얘기한건 좀 있다 얘기하도록 하고 2페이지 4. 제국 안에서의 대안. 이걸 alternative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3페이지 역제국으로서의 다중, 이걸 2번째, counter-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중 대 제국에서 제국에 대항하는 다중, 고거를 세 파트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다중네트워크센터 이전에 WAB이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요, WAB이라고 하는게 Within Against Beyond라는 것이었습니다. Within Against Beyond Empire를 염두해두고 만든 이름인데, 지금 이 within의 의미는 1항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ainst는 3항에서 다루어지는데 3항에 대항, 대립의 기능이 바로 제국을 넘어서는데 있다는 것이죠. (beyond) 만약에 2항에서 counter-의 질이 명백하질 못했다면, 내부에서 대항에도 다시 내부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beyond가 이루어질려면 바로 이 동일성, 돌절성의 어떤 흡입력에서부터 벗어나는 특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2항이 바로, 3의 against가 beyond를 가능케 할 조건을 깔아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gainst가 단순한 against에 그치는게 아니라 beyond로 나아가는 against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항이어서는 안 되고 역(逆)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말에서 역이랑 대항이 그렇게 명백한 어휘상의 구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쓸 때, 일관되게 그 구별을 하면서 쓴다면 이 용어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대항권력 이렇게 했을 때, 대항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권력에 질적 참여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쓰여져왔기 때문에, 대항이라는 말이 대체로는 동일성 범주를 우리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미에서 뒤집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전 인식을 갖고 첫 부분을 한번 보면...

▲존재론적 방법론: 비판적 · 해체적 방법

다중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존재론적 방법론이다. 그니까 다중을 파악하기 위한 저자들의 방법론이 존재론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존재론적 방법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점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하나는 이 actual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actual한 시스템들, 매커니즘들, 현재 펼쳐져 있는 order - 이것을 비판하는 해체적 방법론, 이게 하나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데리다를 구지 인용하지 않아도, 해체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은 1900년대, 20세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비롯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많은 이론들이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actuality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국주의 비판이든, 제국 비판이든 아니면 자본주의 비판이든 파시즘 비판이든 간에, 다양한 유형의 비판이론들은 전개된 것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비판이론의 많은 부분들은 요 virtuality를 괄호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의 주체론은 multitude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비판에 흔히 이 잠재성의 발본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지식인들이라거나 하여튼 지식소유자들의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에서 이 actuality를 비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판의 방법론의 실천적 결과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판의 방법론: 프랑크푸르트학과, 스피박, 데리다 같은 경우

프랑크푸르트학파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파시즘을 축으로 하는 현존질서를 잘 비판했거든요, 예컨대 호르크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실현된 사회주의에서, 30년대 사회주의를 이미 국가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이론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또 자본주의가 관료적 질서의 변형판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응답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pessimistic한 염세적 혹은 비판적 결론으로 나타났었고, 그래서 뭔가 실천적인 대안들은 일반적으로는 엘리트 - 기껏해야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식인층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는 사실상 답답한 결론 이외에는 내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 그치지 않고 데리다라거나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이론 같은 거 그리고 스피박같은 경우...(스피박 같은 경우는 데리다를 상당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이런 이론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론의 약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 질서도 오늘을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질서는 항상 중심에 있는데, 이 질서의 주변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탈식민주의들이 응시하고 있는 주체는 Subaltern 이잖아요. Subaltern이 뭔지에 대해서는 물론 명료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위계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변계급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건 현존하는 질서 속에서 말할 수 없게끔 봉인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합 - 이걸 서발턴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람시가 썼던 용어이죠. 이런 사람들을 응시하라 하지만 서발턴이 지시하라는 내용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주 불투명 하거든요. 노동계급을 지칭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생이라거나 여성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명시적인 사회계급을 지칭하는게 아니고, 바로 억눌려 있는 어떤 하위성, 하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은 네그리, 하트가 다중을 다루는 것과 어찌 보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경계 쪽으로 내몰린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네거티브하게 규정된 사람들이죠. 부정적으로 정의된 사람들. 서발턴이 긍정적인 정의되기 보다는 목소리가 봉인돼있는 사람들, 그래서 현존의 정치적, 인식적인 질서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어떤 x. 그래서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이라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서발턴이 정의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 그런 방식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데리다의 해체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현존하는 것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즉, 서발턴이 주변성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면, 데리다의 해체론은 외부성에 대한 지척을 보여줍니다. 지금 것이 아닌 것, 이 바깥. 그래서 외부, 주변을 끊임없이 응시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겹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검정색의 지대. 그래서 특정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 그래서 어떻다라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를 질서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무한대의 비판이 가능한 흑색지대 속으로 우리의 관점을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이 폐시미즘으로 갔던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성이 있었어요. 현존되어 있는 물질 매커니즘, material form하고는 다른, 어떤 지식. 이게 일정한 여기서 말하는 잠재성의 개념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런 여기서는 외부나 주변

이 그런 걸 담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비판이론이 변형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감벤이 말하는 호모 사케르 같은 경우도 아주 부정적으로 정의된 서발턴이죠. 한번 환원시켜보면... 부정적으로 정의된. 누구나가 죽일 수 있게 된 사람들, 노숙자를 비롯하여서 현대의 삶에서 예외적 주권에 의해 언제든지 죽임의 처해질 수 있는 그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호모 사케르라는 말 자체가 서발턴과 연장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해체론이나 비판이론의 한계

근데 요러한 방법이 대안을 제시 못한다고 해서 비판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순 없거든요. 비판은 또 그 나름대로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비판이나 해체가 바로 존재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론(ontology)이라고 하는거는 어쨌건 리얼리티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죠. 리얼리티를 갖고 있어야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이 일단 비판이론에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요 비판을 존재론 위에 얹어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성(constitution)의 문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성은 여러 차이적인 것들의 이러 저러한 응집, 공통적인 것의 구축-그런 것이죠. 아마 벤야민의 말을 들면 constellation일텐데... 이게 뭐죠? 별자리, 성좌라는 말이죠. 그럼 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갈자리다 하면 이게 우리의 구성이잖아요? 전갈자리가 하늘에 따로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해독하고 형상(이미지)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갈자리가 인식론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형상이라면 존재론적으로 실재 속에서 우리가 이런걸 엮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성인데... 해체론이나 비판이론은 온톨로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이들의 실제적 연결망을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다만 구성되어진 것, constituted 된 것을 이 어떤 차이들로 가져가는 건 가능해요. 다양한 차이들로. 근데 이 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부정적인 것, 무에 가깝죠. 긍정세계라는 거죠. 아니면 진공, 그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거나 진공이라거나 부정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된 차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지시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성에 대한 거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개념틀들이죠.

▲존재론적 방법론: 구축적 · 윤리-정치적 방법

그래서 네그리하고 하트는 바로 두 측면,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방법 외에 구축적이고 윤리적-정치적인 방법은 결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구축적이고 윤리적-정치적인 방법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이죠. 구축적이고 윤리적-정치적인 방법 위에서 비판과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럴 때에만 비판이나 해체가 단순한 저런 부정적 개념에 입각한 비판이나 해체가 아니라 구성적 개념에 입각한 비판이나 해체가 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부정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아주 강한 긍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긍정의 표현이 부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구축적이고 윤리적-정치적인 방법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지점(virtuality)에서 힘을 얻는 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1페이지에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맨 첫 시간에 다루었었는데, 업(res gestae)이라고 했죠. res라는 건 '~한다'라는 것이고 gestae는 '발생시키는 것'이니까... 이 업이라면, actuality이 업적이라면, 축적된 업이라면 virtuality는 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업할 때 인도말에서는 karma라고 하죠?

karma는 영어에서는 그냥 액션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karma를 다 액션이라고 번역해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업이라는 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업보할 때 그 ‘업’자인 것이죠. - 업 karma = action - 어떠한 발생적 힘, 그거를 지칭하는거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res gestae고, 지금 그것이 업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건 2페이지에 중간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 좀 철자가 빠진 거 같은데... historia rerum gestarum 이거는 발생되어진 것, 업적-업적은 발생 되어진 것이 누적된 거죠. 이 업과 업적의 관계로 지금 역사를 파악하는 그래서 업적의 역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고, 업의 역사는 발생으로서의 역사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업, 그러니까 res gestae라는 것이 구축적이고 윤리적-정치적이면서, 바로 그것의 자기 구성의 과정이 현존하는 것하고는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그걸 넘어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과 해체를 수반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이론이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 한 과정의 두 측면이어야 되는 것이죠.

▲Moral & Ethic

그러기 때문에 다중을 지금 alternative로서 다뤄보고 counter-하는 힘으로 다뤄보고 against하는 힘으로 다뤄보는 그러한 방법론을 썼다. 만약에 WAB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Against한다는 것은 어쨌건 비판과 해체를 함축하잖아요. 뭔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니까..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것인데... beyond한다고 하는 거는 구성을 함축해야죠. 윤리-정치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윤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음 윤리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moral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게 필요합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어보면 에티카의 모습은 맨 처음에 자기고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자기 고민이 affect로 나가고 이성(reason)으로 나가고 맨 마지막에 구원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 순서를 밟는데 이게 다 실체의 자기 표현과정이에요. 실체(substance)가 affect로도, 때로는 reason으로 나타나면서, 제3종 인식에 입각한 직관능력의 축적을 통한 자기해방, 즉 구원의 문제는 그 실체의 자기 전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게 Moral은 계율에 입각한 것이죠.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사람 외부의 힘에 입각해가지고 그 타자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규정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하나님이 바깥에 있으면 모랄적 존재가 되는 거죠, 일단. 규율적 존재가 되는 거죠. 명령하는 하나님이 되니까 order를 빼면은 존재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 있을 때, 자기 원인일 때에는 자기, 그 실체의 그 하나님의 자기 전개로서 이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Moral과 Ethic의 차이는 그건데요. Ethic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자기 구원의 문제죠. 이 virtuality의 자기 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니까 푸코가 말년에 이야기하는 그 자기에의 배려, 섭생의 문제 - 그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Ethic의 문제인 거죠. moral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정치라고 하는 걸 도덕정치라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정치라고 하는 거 자체는 바로 이 virtuality의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닌 expression으로서, 자기표현으로서, 자기 전개로서의 정치학이 윤리정치적인 것이고 - 그것이야말로 구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constructive - constitutive

근데 지금 구성적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constructive하고 constitutive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construct는 structure를 결합con한단 말이죠. 구조를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 건축물에서 벽돌을 이어붙인다거나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근데 constitutive에서 constitute는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이것과 같은 축조성을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 부품들을 이어 붙인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제헌했을 때, 헌법을 밑바닥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걸 쓰는 건데, 헌법의 구성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대립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립적으로 사용되진 않고,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입헌주의하고는 제헌 개념은 다른데, constitutive하고 constitutional로 나뉘어서, constitutionalism는 입헌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시면 시민사회 속에 개인들의 갈등, 이 갈등들이 시민사회 내부의 수평면 상에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을 중재하는 제3자를 가져오는 것이죠. 제3자가 바로 인제 법인데, 이 법은 시민사회 개인들 위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중재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입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갈등을 전제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러기 때문에 입헌주의는 결국은 공권력이라거나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 이런 걸 반드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constitution과 constitutive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고정돼있지 않은 제헌의 과정 - 그것을 지칭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2번에 보면 탈근대의 징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생산으로서의 포드주의, 이게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은 탈근대성의 징후로 볼 수 있고... 정치에서는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이 탈근대성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서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물론 이 두 개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통상적인 경제, 정치, 문화 이 3층에 대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2교시: 탈근대적 주체성의 형성

▲탈근대적 주체성의 형성 과정

그리고 탈근대적 주체성의 형성 과정을 우리는 아직 긴 시간 속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초적인 디지털로서의 대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디지털이 현대문명의 생산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뇌 자체가 디지털로 조직되어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원초적 디지털이 바로 유기체를 구성하는 원리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자 디지털의 경우에는 일종의 문명, 문화적 유기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물 유기체와는 다른 문화적 유기체를 생산하는 원리가 문자 디지털이었다. 이런 문자의 발명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권력의 형성 과정이라고 통하죠. 그래서 문자의 발명은 맨 처음에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점차 표준어의 제정과 같은 과정을 밟아 가면서 행정의 편의성을 도구로 사용이 되어 갑니다.

근데 문자가 표준어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언어라고 하는 일종의 야교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명령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언어라는 수단을 쓰지 못한다면 대체로는 인두로 지진다거나 그런 식의 물리적 힘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몸속의 디지털 코드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응집의 방식이 폭력에 의한 거와 다른 식의 구도를 갖게 되는데, 폭력에 의한 것은 강제에 의한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언어에 의한 응집은 자발성을 띠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응집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질긴 성격을 갖는 거죠. 폭력에 의한 거는 바로 저항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자발성은 동원하는 것, 나중에 그람시가 헤게모니라고 부른 게 그거죠. 헤게모니란 폭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항상 동의라고 하는 나도 당신 말 옳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동의를 수반하는 지배이죠. 그 폭력이란 건 감춰있는 경우가 더 많은 헤게모니적이라 하는 거는. 그 동의라고 하는 거는 언어라는 수단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래서 언어의 발생 과정은 민중의 형성 과정이라고 거의 같이 간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다중

근데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사이버 공간을 구축한 현대의 디지털이죠. 기술과학적 디지털이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디지털. 여기에서 다중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운명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에 특징을 보면 이전에 그 소위 문자적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 부를 수 있는 잠재적 폭력과 결합되어 지면서 항상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수반했음에 반해서 오늘날에 기술과학적인 디지털의 경우에는 수평적 소통의 가능성을 이전의 문자 디지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한 기술의 발전동기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people이라고 했지만 민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립된 권위와 재산을 수호하는 이 조직된 특수자들이라고 제국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데... 이 권위(국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민중이라는 말이죠. 민중이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재현을 통해서 지켜주고 세금을 내고 병력을 제공하고 군대를 만들어내고 언어적인 의사표현을 통한 동의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세금을 내주고, 뭐 이런 식의 행위들을 통해서 국가를 끊임없이 재생산 되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확립된 권위와 재산을 수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중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실천들의 보편성이 잠재적으로는 일단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 그런 존재. 맑스가 1800년대 후반에 아나키스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authority - 저자를 말하죠. 저자임, 권위라고 하는게. 내가 이걸 짓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배를 가지고 듭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 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난파 위기에 막 직면을 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때에 그 바람의 성격, 배의 성격, 두 개의 관계, 또 배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성질과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능숙한 함장 - 이 함장이 있게 되면 닥쳐온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함장의 일사불란한 지시를 따라서 사람들이 뚝도 올리고 그런 식의 과정을 밟게 될 때, 집단 전체가 무사하게 바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예를 들면서 권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배의 상황을 공장으로 가져오죠. 한두 차례 언급을 했지만 The Many-Headed Hydra를 쓴 마르쿠스 같은 사람은 배 공장에 이진 모델이 배였다, 라고 함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맑스하고 유사한 견해를 펼치는데, 맑스는 배 뒤에 공장에서의 감독관의 필요성, 자본주의에서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설득력과 설명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장 감독관이 그들의 구상 능력, 지휘 능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일종의 authority라고 봅니다.

▲다중Multitude의 등장

근데 지금 이제 국가, 언어에 authority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의 갈등과 끊임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휘 능력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사이버 공간의 경우에는 사령탑이라고 하는게 명료하지가 안잖아요? 그래서 뭐 허브라거나 하는 관문적인 것에 해당하는 사이트들과 실제적인 국제적인 관문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힘들의 마디들 - 이런 것에 해당되지 이게 전체 다 인터넷을 명령하고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디들, 마디들의 자기 힘들이 여러 우연적인 계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터넷이니까... 이러한테서 이전에 이런 구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관계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게 네트워크라고 보는 거죠. 그니까 피라미드에서 네트워크, 물론 네트워크 개념을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면 피라미드도 역으로 보면 네트워크의 한 방식이죠. 네트워크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 형태라고.

새로운 유형의 네트워크가 나타난다. 그 잠재성이 현재의 기술과학 디지털에서 주어진다. 바로 이런 것 속에서 다중이라고 불리는 Multitude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multi란 말이죠. 복수적인, 다수적인 그런 말인데 스피노자와 흄스의 저서를 통한 논란 과정을 보면, 이 당시에 아주 오래 거슬러 가면 15세기말, 16세기 이 무렵에 새로운 유형의 집단 형성을

둘러싼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말한 people이라는 것을 근대화의 주체성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다양한 저작들이 쓰여진다는 거죠. people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민중을 만들어 내는가, 어떻게 인민을 만들어 내는가, 어떻게 인민군을 만들어 내는가하는 인민형성의 문제, 민중형성의 문제. 이게 근대화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고, 주어진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저작들은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근대, 탈근대 이런 것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중인가 아니면 다중인가, 이 주제를 우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글을 쓸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 늘 의식하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 저작들에서 이 쟁점을 읽어내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편적인 이슈였다.

▲people과 multitude

그니까 people이라고 하는 것.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public - 공적인 것. 공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조직하는게 people이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 방식이죠. 공(公)을 통해서 사(私)를 조직하는, 사(私)의 위에 공(公)이 있게 만드는 것. 사(私)간의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공(公). 이거(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한거죠. 사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즉 시민사회가 발생하는 것은, 이전의 코몬들 이 common들의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common과 common이 만나서 사이에 나오는게 society인데, 이 society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력적인 상태를 빚어내는 것이죠. 이리의 이리에 대한 전쟁 상태. 스피노자도 국가론 앞부분에 보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고 말하는 건데, society의 뜻은 전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common은 전쟁 상태가 아니죠, community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community에서 society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적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쟁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를 재구축하는 것이죠. 이 평면에서가 아니고 초월적 영역의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맑스는 이걸 환상의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말이죠. 환상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재현하는 건데... 이 공동체의 재건이 바로 public, 바로 공(公)에 기초하고 있고, 이 public을 지탱하고 지지하고 밀받침하는 그 세포들을 people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people이라는 말은 공(公)하고 땔래야 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원 자체가 people이 public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Multitude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community의 해체를 일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public한 방식으로 조직함으로써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내는게 아니고, 일종의 아나키한 상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바로 그 해체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이게 근대화의 갈림길이었다는 겁니다. 승리한 쪽은 당연히 people이었습니다. 근대화는 people이 승리한 과정이었고, multitude를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억압하고 눌른 과정이죠.

▲민중, 대중, 그리고 다중의 역사적 맥락

그럼 이제 Multitude들을 보면은 people은 어쨌건 논발이라거나 선비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로 보면은, 농민들부터 서얼이라 할지라도 엘리트로 출세해가는

과거제도 같은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엘리트가 되기도 하고 어찌고 하면서 이 국가의 부처로 합류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건 어디에서나 나타났던 반면. 이 community의 해체상황을 people로 재조직하기를 거부하는 유형들의 사람들 - 이 사람들은 예컨대 거지(걸인)가 된다거나 유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려 쪽으로 자기를 변신시킨 다거나, 예전에는 승려가 존경 받는 직업이었지만, 점점 가면서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맑스주의 담론에서 보면 룬펜프롤레타리아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룬펜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건달, 깡패, 이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건달이랑 깡패란 말인데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인데, 이런 유형의 무산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여성으로 치면은 매춘부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존재들이 발생한 것이죠. 이게 이제 사회의 주변부에 쪽 배치되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푸코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두 가지 유형으로 - 하나는 죄수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쳐 넣고, 또 다른 방식 이거는 이제 신체의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에 나쁜 습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정신병동에 집어넣고. 정신병동이나 감옥이 인제 17~18세기 때 쯤 늘어나는 과정을 푸코는 분석하지 않습니까? 감시와 처벌이라거나 광기의 역사 같은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인제 사회로부터의 격리 과정입니다. society로부터의 격리 과정. 격리 절차가 이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법학이 발전하고, 정신병리학이 발달하고 이런 이론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 사람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맑스주의도 이 과정에서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제 비생산적 존재들, 비생산적 노동자라거나 비생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people로 만들거나, 이거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감옥, 정신병동으로 보내야죠. 격리시켜 버리거나 people로 흡수하거나, 이게 인제 근대화의 아주 골간적인 문제였다, 그게 인제 스피노자 흡수를 가르치는 분기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이 노선(룬펜프롤레타리아트)의 경우에는 자립적인 존재를 갖지를 못하고 사실은 전부 people 쪽으로 흡수되었다고 해도 좋죠. 다 흡수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폐기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거나... 그건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에도 예외가 아니고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게 거세, 아이러니,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죠, 인제. 그래서 people로 전부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중으로의 합류 과정.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당연히 노동이라고 봐야할 터이고, 또 다르게 바로 이제 이 병역일텐데, 이 두 개는 뭐 대립 된다기 보다는 병역은 노동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유형을 달리하면 노동이죠, 사실상. 노동은 공장을 통해서 조직되고, 병역은 군대를 통해서 조직됐죠. 장소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중, 이게 노동자이고, 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중이 인민군이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적인 정통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정치활동가들인 맑스주의의 경우에도 혁명의 문제를 인민군의 문제로 보고, 혁명의 문제를 노동계급의 문제로 봤거든요. 어떻게 노동계급을 형성하고 어떻게 인민군으로 조직하느냐가. 그래서 노동자 군대. 이거를 만듦으로써 부르주아 권력 자본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